

해외 고병원성 AI 지속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

◎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최근 유럽(폴란드, 슬로바키아, 헝가리)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 하고 있으며, 주변국인 대만, 중국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강화를 당부했다.

*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에 발생 보고 : 폴란드(1.2.~1.7., 가금농가 9건), 슬로바키아(1.10., 가금 농가 1건), 헝가리(1.13., 가금농가 1건), 대만(1.1.이후 가금농가 16건), 중국(1.10, 야생조류 2건)

◎ 방역강화 당부 사항

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	도래지 인근 도로에 축산차량 진입금지, 가금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금지, 특히, 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산책,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
② 취약농가 소독 강화	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, 종계·종오리·산란계 등 차량 출입이 많은 취약농가는 진입 차량 통제와 3단계 소독(축산시설 소독→거점소독시설 소독→농가 소독)을 철저히 이행
③ 환적장 운영·관리	종오리와 산란계 농가는 차량 출입 최소화를 위해 종란과 계란 등 반출 시 환적장을 운영토록 하고, 환적 전/후 차량 바퀴와 운반 기자재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
④ 농가 출입차량 통제·소독	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(사료·분뇨·계란·왕계)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부득이하게 진입이 필요한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3단계 소독 여부를 필히 확인
⑤ 경작 겸업농가 소독	논·밭농사를 함께하는 경작 겸업 가금농가는 농가 출입 전후 농기구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
⑥ 일제 입식·출하	육계·육용오리 농가는 겨울철(11월~2월) 일제 입식·출하(all in-all out), 출하 14일 동안 입식 금지 의무를 준수
⑦ 검사 강화 이행	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도축장과 취약축종(종오리, 산란계 등)에 대한 강화된 AI 검사 계획을 철저히 이행

◎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히 생석회 도포, 축사별 장화(신발) 갈아신기, 방역시설(그물망·울타리·전실 등)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필히 이행